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복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1 COVE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종태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

02 FOCUS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의료개혁은
「다학제 협업 존중」이다

07 INTERVIEW

안과 검사실
김재민 회원 인터뷰

제508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디자인 서경아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장종태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과 4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협회장, 송기선 학술부회장, 최병호 사업부회장, 정옥희 중소병의원이사,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을 비롯한 중앙회 집행부와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권지연 회장 및 집행부, 지역별 중소병원대표위원 등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박지민 서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검진기관관리부 김태희 부장, 검진지원부 변창오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의제로 다뤘다. 최병호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건강검진 제도 도입 초기, 수검자의 검진기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명 미만일 경우 예외적으로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현재는 그 의도와 다르게 변질됐다"며 "독소조항으로 인해 현재는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의사와 임상병리사 대신 타 직역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해 공단 검진의 신뢰성 저하 및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15인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제도 개선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관리 감독의 문제로 풀 것인지 하는 면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검토 후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 또한 다뤄졌다. 현행 기준의 취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김

태희 부장의 설명과 의료기관 인력 현황 및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지민 서기관의 설명이 이어지던 중 의료기관 인력 현황 최신자료가 언급됐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 인력 신고 현황에 대해 일반 의료 소비자는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태희 부장과 박지민 서기관은 내부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광우 협회장은 "장시간 협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장종태 국회의원님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회의 중 나온 내용처럼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인 의료기관에서 의무가 아님에도 대부분이 임상병리사를 채용하는 것은 그만큼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현행 조항을 폐지하고 예전처럼 필수 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현행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검진기관의 편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로 종사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오직 '국민 건강'인 만큼,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더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당국과 협회의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이 수립될 수 있게 의원실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경북, 울산 지역에 지원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전국 임상병리사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7,415,222원과 전국 16개 시도회에서 뜻을 모아 기부한 10,000,000원 등 총 17,610,148원을 모금해 피해지역에 위치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곽진영),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남상열)가 대표로 각 기부처에 전달했다.



경남도회는 4월 22일(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회장 박희순)에 6,000,000원을, 경북도회는 23일(수)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회장 김재왕)에 5,805,074원을 기탁했다. 울산시회는 28일(월) 울산광역시청(시장 김두겸)에 동일 금액을 전달했다. 성금은 각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 전달식에 참여한 이도왕 공보부회장은 "협회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해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병리사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넘어,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 곁에 든든히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우 협회장도 "작은 정성이지만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이번 성금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의료개혁은 『다학제 협업 존중』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기유

협회에 속한 회원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가 속한 곳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었는가?

협회가 무슨 목소리를 내든 회원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이것보다 암울하고 답답한 현상은 다른 아닌 '셀프 입틀막'이다. 자기에게 외압이 있기도 전에 미리 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스스로를 제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입틀막'하는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기대어 '입틀막'하는 권력자들의 시선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발버둥이라도 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한다는 사실이다.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먹이사슬 같은 권력구조 안에서 무엇이라도 함으로써 개혁해하려고 하는 선의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언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념에 매몰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올라올 뿐이다.

협회의 현안 중에 하나인 협회에 속한 세포전문임상병리사와 의사단체인 세포병리학회에 속한 세포병리사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답답함에 무기력함을 경험했다.

협회가 가진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함께 목소리를 내어 외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목소리도 사회에 큰 반향이 되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차기 정부의 의료개혁은 다학제 협업 존중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관련 면허를 획득한 경우 법률이 규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사 등 각 직역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은 의료법만을 따르는 등 의료기사들에 대한 인력기준제도가 없다.

이러한 보건의료 인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보건의료 요구(demand)나 필요(need)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및 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 인력 정책 수립에 앞서 보건의료 인력의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관리 체계와 심층적이고 섬세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정의)에 따르면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치과의사 인력의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 지도 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다.

비의료기관인 돌봄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과 의뢰 방식으로 현실성·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사가 대상자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다 의사·치과의사가 동행하여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하기에는 의사 등 인력 공급 한계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며, 비용 효과 면에서도 불합리하기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돌봄 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적정성 마련이 차기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 중 하나가 아닐까 감히 단언해본다.



의사만 있으면 다 해결되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4월 17일에 증원 전 규모인 3천 58명으로 확정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는 기사를 보았다. 사실 의대 증원 문제로 생긴 의정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이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 개혁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그간의 정부 계획을 믿고 싶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지루하고 소모적인 의정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극적인 합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에 의료 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한 것에도 참을 수 있었다.

의대 정원 동결의 선제조건인 '의대생 전원 복귀'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증원 전 수준으로 정원을 되돌린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과연 의료계의 적정인력 확충 문제가 의료기사 직종이었다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을까?

정원동결은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진료권에 대한 비뚤어진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단초가 된 것이다. 의대 정원동결이 2026학년도만의 일로 끝나지 않고 의대생 유급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을 빌미로 2027·2028·2029학년에 정원동결은 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의사들의 힘의 논리는 언제든지 재생산될 것이다.

의사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가? 의료계에서 '명의(名醫)'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현대 의학에서 명팀(team)은 있을지 몰라도 명의는 없다. 어려운 수술일수록 의사 혼자선 안 되고, 어떤 수술이든 집도의 외에도 마취과 의사,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수술 전 검사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의료기사들의 수고가 필요한가? 명의 한 사람이 '씻은 듯'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의사가 곧 병원이고 의료제도 자체인 것은 아니다. 의사도 제도와 사회의 일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은 다학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함에도 '의사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인식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회적 인식은 바뀌어져야 하고 의식은 성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대변하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신문기사에서 나온 신조어이다. '입틀막'이란 말이 그것이다. '입틀막'은 원래 '남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놀라움과 감탄 등으로 벌어진 입을 자기 손으로 가리는 행동에 대한 애교 섞인 표현으로 주로 쓰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석상에서 누군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 경호원들이 그 발언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입틀막'은 답답하고 암울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대변하는 신조어가 되었다.

임상병리사 역사는 63년차에 접어들었다.

우리 협회는 63년 동안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어떠한 사회적 반향을 만들었는가?



보건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참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4월 7일(월) 오후 1시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이수진·김윤·서미화·김선민·전진숙·김영배·남인순·박희승·백선희·임미애·전종덕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4.7 보건의 날 기념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인하대학교 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기획실장이 각각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김기유 실장은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수요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실장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는 면허 및 자격 제도로 업무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의료법 안에 있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의료기사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은 적절한 인력 기준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보건의료인력 전반 및 직종별로 지적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개입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실장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의료기사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도를 처방과 의뢰 방식으로 현실성·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사가 대상자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의사, 치과의사가 동행해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하기에는 의사 등 인력 공급 한계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며, 비용효과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함께 지정토론에 참가한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고 적정인력 논의가 중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2025년 AAMLS 총회 및 대만학회 참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4월 10일(목)부터 13일(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25 제8회 AAMLS Congress & The 제16회 APFMLS에 참가했다. 이번 학회에는 이광우 협회장, 박종오 행정부회장, 송기선 학술부회장, 이도왕 공보부회장, 김한규 기획부회장 포함 총 46명이 참가했다.

협회 대표단은 한·대대표자회의를 통해 학회 일정 등 양국 협회의 안건을 다뤘고 학회에 참가하며 양국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AAMLS 총회에서 이광우 협회장이 AAMLS 회장에 당선돼 2년간 AAMLS를 이끌 예정이다.

AAMLS는 한국, 일본, 브루나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마카

오, 캄보디아 등 13개국 임상병리사연맹 단체로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해 임원 선출 및 학술 교류를 진행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017년 제5회 AAMLS Congress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했고 대만에 이어 AAMLS Headquarter 업무를 수행해왔다.





제506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4월 9일(수)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0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4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부장 26명 중 22명, 총원 45명 중 36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제185차 정기이사회 및 2025년 행정실무워크숍 개최 안내, 2025년 507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사무국 직원 승진 보고, 산불피해 성금 모금 결과보고 △재무부 교부금 지급, 정기에금 재예치, 2025년 진폐정도관리 폐기능검사 및 판정교육 대행 용역 계약 체결, 2024년 귀속분 하나카드 제휴기금 적립, 협회비 일시납(10년) 납부자 보고, 2024년 귀속 법인세(수익사업) 신고, YBM연수원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 △학술부 2025년 정책과제 심사 결과 보고, 울산 종합학술대회 업무 진행 건, 편집위원회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제 57-1호(2025년도 3월호) 논문교정심사비 보고 △교육부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전·현직 임원 간담회, 제1차 세포전문병리사 인증 TF 회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로 교육훈련센터 자문회의, 제1차 임상병리사 학제단일화 TF 회의, 제2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위원장 회의 △국제부 제16회 아태의학검사과학포럼(대만학회) 및 제8회 AAMLS 학회 참석의 건, AAMLS (Award Committee) 진행 상황 보고의 건, 교차트레이닝 일정 및 광주시회-뉴타이페이 TAMT 초청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3월호 발행의 건, 협회비 할인 이벤트 안내 알림톡 발송의 건, 온라인 배너광고 및 보도자료 계약 진행 예정의 건, 서울 및 수도권 광역전철 영상광고 계약 진행의 건, SNS 관리, 보도자료 및 축사 작성, 회원고충처리 현황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운영 회의의 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의 건, 협회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건, 협회 통합시스템 기능개발 요구 취합의 건, '202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통합 전산시스템 고도화'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의 건, 사무국 모니터 및 전자출결시스템용 프린터 구입의 건, 3월 엠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2026년 KOICA 사업 참여 기획의 건 △정무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후원금(찬조금) 전달식 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장종태(대전 서구갑)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병의원부 중소발전위원회 2차 회의, 공익신고 위원회 3차 회의, 2025년도 16개 시도 중소병의원 정책간담회 진행 건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제2차 보험부 회의 개최가 진행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사무국운영 제 규정' 개정의 건, '여비규정' 개정 및 검토의 건, '회의수당 운영세칙' 개정의 건, '연구·정책과제 운영관리규정' 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개정의 건, '종합학술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문서관리규정' 개정의 건, '시도회·분과학회 회칙' 개정의 건, 온라인 보수교육 등록비 교부금 세칙 개정의 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의 건을 진행했다. 10호 안건은 보류, 나머지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제506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신형식 재무이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형식 재무이사(국립암센터 파트장)가 4월 11일(금)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제66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형식 이사는 임상병리사의 권익향상과 업무 권역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증대 및 예산 집행에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협회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돼 이번 표창이 수여됐다.



중앙회 동정

- 4월 2일 제2차 보험부 회의
제2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
- 4월 4일 전산시스템 운영 회의
- 4월 5일 제1차 법제위원회 회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위원장 회의
울산광역시 중소병의원 간담회
-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병의원 간담회
-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 4월 8일 제3차 전산시스템 재구축 TF 회의
- 4월 9일 제506차 상임이사회
- 4월 10-13일 2025 대만학회 및 AAMLS

- 4월 17일 제2차 임상병리사 학제일원화 TF 회의
제3차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 4월 19일 제63회 종합학술대회 킥오프 회의
경상남도 중소병의원 간담회
- 4월 22일 제3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
- 4월 24일 제4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 4월 26일 제185차 정기이사회 및 행정실무워크숍
- 4월 28일 2025 일본학회 점검 회의
- 4월 29일 장종태 국회의원 간담회
제1차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제185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4월 26일(토) 오전 11시 YBM연수원에서 제18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는 총원 50명 중 42명, 감사 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제185차 정기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5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제185차 정기이사회 및 2025년 행정실무워크숍 개최 안내, 협회 신규 TF 구성 보고,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울산)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사무국 직원 승진 보고, 산불피해 성금 모금 결과보고, 중앙회 특별감사 관련 경과보고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5년 제63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울산시회 2차 홍보지원금 지급, 2025년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및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예산 지급, 징계무효확인청구의 소 및 징계효력정지가처분 관련 비용 지급 보고,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건축 건물의 공사비 적정성검토 용역 계약금 지급의 건, 정기예금 재예치, 2025년 진폐정도관리 폐기능검사 및 판정교육 대행 용역 계약 체결, 2024년 귀속분 하나카드 제휴기금 적립, 협회비 일시납(10년) 납부자 보고, 2024년 귀속 법인세(수익사업) 신고, YBM 연수원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 △학술부 202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 제1차 연수강좌 결과보고, 2025 연구·정책과제 모집 공고 및 선정 결과, 울산 종합학술대회 업무 진행 건, 편집위원회 업무 보고, 편집위원회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제 57-1호(2025년도 3월호) 논문교정심사비 보고 △교육부 제1차 교육부 회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사무국 회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수교육 관련 회의, 제1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및 분과학회장 연석회의, 시도분과학회 연합 보수교육 회의, 2025년 보수교육 계획,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전·현직 임원 간담회, 제1차 세포전문병리사 인증 TF 회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로 교육훈련센터 자문회의, 제1차 임상병리학과 학제일원화 TF 회의, 제2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국제부 2025년 제63회 종합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학생포럼 주제선정의 건, 제16회 아태의학검사과학포럼(대만학회) 및 제8회 AAMLS학회 참석의 건, AAMLS (Award Committee) 진행 보고의 건, 제74회 일본의학검사학회 참가 예정의 건, 교차트레이닝 일정 및 대외 학회 홍보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발행의 건, 병리협보 광고 계약의 건, 장기계약(3년 및 5년) 광고료 설정의 건, 협회비 할인 이벤트 안내 알림톡 발송의 건, 온라인 배너광고 및 보도자료 계약 진행의 건, 서울 및 수도권 광역전철 영상광고 계약 진행의 건, SNS 홍보 진행의 건, 보도자료 및 축사 작성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운영 회의의 건,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건, 협회 통합시스템 기능개발 요구 취합의 건, '202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통합 전산시스템 고도화'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의 건, 사무국 모니터 및 전자출결시스템용 프린터 구입의 건, 월별 오피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2025 미래의료리더십포럼 최고위과정 제2기 참여, 2026년 KOICA 사업 참여 기획의 건 △정무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후원금(찬조금) 지급 관련,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장종태 국회의원 상견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장종태(대전 서구갑)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대외협력부 역사기록 보존위원회 위원 현황 변동의 건,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신설 항목,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중소병의원부 중소병의원부 1차 회의, 공익신고위원회 2차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실무자료 개발팀 소위원회 2차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2차 회의, 공익신고위원회 3차 회의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제2차 보험부 회의 개최, 제1차 채혈료 수가산정 TF(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의 개최가 보고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사무국운영 제 규정' 개정의 건, '여비규정' 개정의 건, '연구·정책과제 운영관리규정' 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개정의 건, '종합학술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문서관리규정' 개정의 건, '시도회·분과학회 회칙' 개정의 건을 진행했다. 안건은 모두 통과됐고 기타토의 후 제185차 정기이사회는 폐회했다.



2025 연구·정책과제 모집 공고 및 선정 결과, 울산 종합학술대회 업무 진행 건, 편집위원회 업무 보고, 편집위원회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제 57-1호(2025년도 3월호) 논문교정심사비 보고 △교육부 제1차 교육부 회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사무국 회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수교육 관련 회의, 제1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및 분과학회장 연석회의, 시도분과학회 연합 보수교육 회의, 2025년 보수교육 계획,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전·현직 임원 간담회, 제1차 세포전문병리사 인증 TF 회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로 교육훈련센터 자문회의, 제1차 임상병리학과 학제일원화 TF 회의, 제2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국제부 2025년 제63회 종합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학생포럼 주제선정의 건, 제16회 아태의학검사과학포럼(대만학회) 및 제8회 AAMLS학회 참석의 건, AAMLS (Award Committee) 진행 보고의 건, 제74회 일본의학검사학회 참가 예정의 건, 교차트레이닝 일정 및 대외 학회 홍보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발행의 건, 병리협보 광고 계약의 건, 장기계약(3년 및 5년) 광고료 설정의 건, 협회비 할인 이벤트 안내 알림톡 발송의 건, 온라인 배너광고 및 보도자료 계약 진행의 건, 서울 및 수도권 광역전철 영상광고 계약 진행의 건, SNS 홍보 진행의 건, 보도자료 및 축사 작성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운영 회의의 건,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건, 협회 통합시스템 기능개발 요구 취합의 건, '202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통합 전산시스템 고도화'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의 건, 사무국 모니터 및 전자출결시스템용 프린터 구입의 건, 월별 오피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2025 미래의료리더십포럼 최고위과정 제2기 참여, 2026년 KOICA 사업 참여 기획의 건 △정무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후원금(찬조금) 지급 관련,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장종태 국회의원 상견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장종태(대전 서구갑)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대외협력부 역사기록 보존위원회 위원 현황 변동의 건,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신설 항목,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중소병의원부 중소병의원부 1차 회의, 공익신고위원회 2차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실무자료 개발팀 소위원회 2차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2차 회의, 공익신고위원회 3차 회의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제2차 보험부 회의 개최, 제1차 채혈료 수가산정 TF(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의 개최가 보고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사무국운영 제 규정' 개정의 건, '여비규정' 개정의 건, '연구·정책과제 운영관리규정' 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개정의 건, '종합학술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문서관리규정' 개정의 건, '시도회·분과학회 회칙' 개정의 건을 진행했다. 안건은 모두 통과됐고 기타토의 후 제185차 정기이사회는 폐회했다.

2025년 행정실무워크숍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4월 26일(토) 오후 1시 YBM 연수원에서 2025년 행정실무워크숍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강종원 부회장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다.



중앙회와 시도회, 분과학회 집행부의 행정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행정(최현지 행정지원국장) △행정(회의방법)·재무·행정지도 감사(조미숙 사무총장) △보수교육(장성호 교육이사) △정보통신(주태영 정보통신이사) △법제(김동현 법제이사) 교육이 진행됐고 특별히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지역사회돌봄과 임상병리사의 활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단체 줄다리기 및 줄넘기 등 단합대회를 실시하며 협회의 결속을 다졌다.



<https://pr.segenemedical.com/>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재)씨젠의료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 역량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등에서 검사센터와 클리닉 및 검진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질병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운영



국내 최대 분자진단 검사 역량 보유



인공지능(AI) 등 최신택기술 도입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서비스 제공

안과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를 만나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 임상병리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다양한 생리검사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안과 검사는 임상병리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 중 하나로, 환자의 시각 건강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안과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는 생리검사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을 뒤로 하며 새로운 안과검사 업무를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으로 확장시켜온 임상병리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과검사실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안과검사실에서만 근무한 김재민 회원을 인터뷰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기능검사팀 소속으로 안과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민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대학졸업 후 바로 안과검사실로 입사하여 올해로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안과 검사실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A. 사실 졸업 직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안과검사실에 근무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검사팀에 지원할 때 입사하게 된다면 제가 익히 알고 있던 뇌파, 근전도와 같은 생리기능검사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합격 통지를 받고 안과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임상병리사가 안과검사도 하나?', '나는 한 번도 배우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입사를 망설였습니다.

꼬박 만 하루를 고민하며 선배들로부터 안과검사실에서의 임상병리사의 입지에 대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라는 옛말처럼 신체기관 중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을 검사하는 것이 보건의료인으로서 보람된 일이고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 확장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Q. 안과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과에는 정말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검사실에는 15가지 종류의 검사장비가 있고 20여 가지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과에서 진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안압, 굴절, 시력 및 교정시력검사부터 망막전위도검사와 시유발전위검사 같은 전기생리화학적 검사도 있고 안구광학단층촬영, 안저촬영과 같은 영상화학적 검사 등 이외에도 많은 검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안과에서 근무하며 가장 힘든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 있으셨을까요?

A. 안과 검사의 특성상 환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움직이면 정확한 검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는 눈을 한 곳에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소아의 경우에도 집중을 하지 못해 검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많은 것도 힘든 부분입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 신체기능의 저하로 검사 시 흔들림이 많고 시력저하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람은 검사가 끝난 뒤 환자분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느낍니다. 안과 대부분의 검사는 짧은 시간에 끝나고 많은 환자분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검사하면서 힘들지만 한 번씩 고마움을 표시하는 환자분이 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달에는 고객 추천칭찬직원으로 뽑힌 일도 있었습니다.

Q. 안과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임상병리사 면허 이외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과정, 자질이 있으셨을까요?

A. 안과에서 근무하기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상병리사가 안과검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여러 장벽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업무 관련 교육의 부재입니다.

생소한 장비와 용어가 많아 즉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에 자신감의 부족이나 적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안과검사에 관한 교육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안과검사에 대한 이론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안과학, 굴절검사학, 안과학용어, 녹내장 등의 전공서적을 활용하여 독학하고 같이 일하는 타 직종의 선생님들께 질문하며 배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과에 관심이 있거나 지원하신 분들은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최근 협회에서 진행 중인 기초교육을 이수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실제 업무에서 쉽게 적응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아내 분도 같은 직장 내 임상병리사라고 소개를 받았습니. 같은 직장 안에서 부부가 함께 임상병리사로서 근무하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A. 장점은 다른 직업을 가진 맞벌이 부부보다는 아무래도 서로의 업무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해주고 고충에 대해 같이 생각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부부는 대부분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휴일 또한 같아서 여가생활을 같이 하기에 좋습니다. 단점은 없습니다.



Q.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까요?

A. 제가 입사 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안과외래와 검사실의 규모가 커졌고 신규장비와 검사가 추가되었으며 후배 직원들도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2024년 저희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내원 환자분들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실 환경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Q. 안과와 관련하여 협회와 대학교육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A. 제가 입사했을 때만해도 안과검사실에 임상병리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현재는 4명의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아직 저희가 안과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회에서 안과검사학을 집필하고 안과검사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과 안과 취업 희망자 및 현장의 실무자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학 교육 과정에도 적용되어 하루 빨리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안과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협회와 대학의 긴밀한 협력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신경전도 및 근전도 실무자 교육 수료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가 3월 29일(토) 4주간의 신경전도 및 근전도 실무자 교육을 마친 후 수료식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남정보대학교 K-메디칼에서 실시됐다.



제53회 부산광역시 보건의 날 행사 참가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가 4월 4일(금)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3회 보건의날 행사에 참석했다. 부산시회 김정규 감사는 이날 행사에서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 참가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는 대구광역시가 4월 7일(월)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아 대구의료원 라파엘 웰빙 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기념식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이휘헌 회원(대구파티마병원)은 대구광역시 표창을 수상했다. 이휘헌 회원은 대구시회 총무 이사직을 수행 중이며,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정기적인 헌혈 동참으로 생명 나눔 문화에 동참했다. 또한, 대구시회가 주최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혈액형 검사와 혈당 검사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에 참여하는 등, 대구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선도적인 봉사활동을 실천수범한 점이 임상병리사의 사회적 활동에 귀감이 된 것으로 높이 평가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휘헌 회원은 “먼저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가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협회와 함께하는 중소병의원 간담회

3월 20일(목) 오후 7시 한림병원에서 중앙회 주관 인천광역시 중소병의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채희영) 집행부와 인천 중소병의원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상병리사의 미래정책 방향(중앙회 이광우 협회장)과 의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소병의원(중앙회 최병호 사업부회장)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고 이후 토론회에서 회원들은 협회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함께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광주광역시 남구 노소영 구의원 간담회 실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가 3월 20일(목) 광주시회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노소영 구의원을 만나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평소에도 많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왔는데 진단검사의 주역인 임상병리사분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훈 회장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소개하고 협회 주요 활동,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와 더불어 광주시회의 사업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요쟁점인 '지역사회 의료 돌봄 사업'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현장검사(Point of Care Testing, POCT)의 정의와 목적, 검사의 종류와 장점 등을 안내하고 검사전문가인 임상병리사가 현장에서 직접 검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 회장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 의료실태에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간소한 진단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이들 곁에서 직접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POCT는 특히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된 현재 지역돌봄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하며 정확한 검사 시행과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국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투입되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소영 의원은 “평소에도 법의학과 간이검사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만남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임상병리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의료비용 예산 절감과 많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의료 돌봄 사업'이 필수적이기에 많은 기초정책과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임상병리사의 현장 투입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정훈 회장은 “현재는 임상병리사가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부족하고 직역별 고유 권한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내년 시행될 지역의료 통합지원법에 반드시 임상병리사가 포함되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검사를 제공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관리 및 예방을 위한 향후 보건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의료비용 예산 절감과 많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의료 돌봄 사업'이 필수적이기에 많은 기초정책과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임상병리사의 현장 투입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중앙회 주관 중소병의원 간담회 개최



4월 5일(토) 오후 2시 비플라운지에서 중앙회 주관 울산광역시 중소병의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남상열) 집행부와 울산 중소병의원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상병리사의 미래 정책 방향(중앙회 이광우 협회장)과 의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소병의원(중앙회 최병호 사업부회장)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고 이후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의료봉사로 도민의 마음을 열다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회장 김현준)는 4월 6일(일) 전북 대표 체육행사인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서 의료봉사 부스를 운영하며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혈관 및 호흡기 건강 검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는 원광보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등 전북 소재 대학의 임상병리학 전공 학생과 회원 등 5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부스운영 및 환경미화 활동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알렸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국내의 12,000명 이상이 참가한 전국단위의 대형 행사로 진단 검사 전문인력인 임상병리사들은 의료봉사 부스에서 참가자들에게 현장진단검사(POCT) 기기를 이용해 △심전도 및 혈압 검사 △혈관건강도 검사 △폐기능 검사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일부 고령자에게서 심방세동 의심지표를 확인해 추가 진료를 권유했다.

또한 봉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실무에 대한 질의, 검사기기 활용법 지도 및 운용을 통해 "같은 길을 가게 될 동료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고 미래에 열려 갈 모습을 체험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자신들의 역할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현준 전북도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미래의 임상병리사를 꿈꾸는 지역 대학생들과 회원들이 함께했던 경험을 살려 전북도민들의 검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협회의 핵심사업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에서 임상병리사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보건 의료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하며 "채혈, 심전도, 초음파, 폐기능 등의 검사 주체가 임상병리사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기에 임상병리사가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산불 피해복구 자원봉사 실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가 4월 6일(일) 오전 9시 경상북도 영덕군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경북도회는 산불피해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주민들의 임시거처를 방문해 주변정리 및 배식 업무 등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 일정은 경상북도 구미, 경주, 포항 지역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진행됐으며, 특히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팀과의 협업이 이어졌다.

조대현 회장은 "현장에는 작은 트럭 안에서 무료 커피를 나눠주시는 분들, 설 틈 없이 돌아가는 세탁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 드시던 약을 챙겨드리기 위해 현장을 지키는 약사회 분들 등 아픔을 함께 나누고 빠른 회복을 위해 선뜻 마음 내어준 따뜻한 분들이 많아 비록 날은 쌀쌀했지만 훈훈한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함께하는 마음이 큰 힘이 되기에 이러한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든 큰 힘으로 전국적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되어 훗날리는 벚꽃처럼 산불피해 지역에 하루 빨리 봄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MATSUNAMI SLIDE GLASS



홈페이지
www.hyunil-lab.com



쇼핑몰
www.lab-mate.com

주식회사 현일랩메이트
TEL. 1577.6255 | FAX. 02.332.1974
E-MAIL. support@hyunil-lab.com

HYUNIL * MATSUNAMI

FINE FROST

- 8가지의 다양한 색상 선택 가능
- 대부분의 슬라이드 프린터기 호환

PLATINUM PRO

- Platinum coating
- 면역염색 및 특수염색 시에도 백그라운드 발생 최소화
- 자동면역염색장비 사용 추천

FRONTIER

- Frontier coating
- 접착력이 우수하며, 염색 시 바리 현상이 적어 조직 손실을 최소화

FINE FROST, MAS

- MAS coating
- Matsunami社 특수 코팅으로 접착력이 우수하며, 바리 현상 방지 슬라이드로 추천

FINE FROST, APS

- Aminosilan coating
- 염색 시 내열성과 안정성이 우수



■ 일반 슬라이드 ■ 코팅 슬라이드

ESPO 장비 전용 카세트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제1회 건강걷기대회 개최...회원 건강과 교류를 위한 활기찬 출발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는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4월 5일(토), 남한산성 둘레길에서 '제1회 건강걷기대회'를 공식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회 차원에서 마련한 첫 공식 야외 건강걷기 프로그램으로, 회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걷기대회는 총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걷기 행사는 오후 2시 등록 및 인사 소개로 시작되었고, 14시 20분부터 16시 2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트레킹 코스를 함께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단체 사진 촬영과 정리 시간을 가진 후, 16시 30분부터는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겸한 친목 교류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임상병리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도내 병원과 기업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그리고 동남보건대학교 등에서 참가한 임상병리학과 학생들도 함께해 전문성과 세대가 어우러졌다.

특히 경기도회 봉사단체 '다빈'은 이번 행사와 연계해 '플로깅 행사'를 함께 기획·운영했다. 행사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설명과 장갑 및 봉투가 배부됐고, 걷기 활동과 동시에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친환경 활동이 병행됐다.

유광철 회장은 "이번 걷기대회는 단순한 야외활동을 넘어, 회원 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함께 걷는 시간을 통해 건강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긍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기춘 '다빈' 회장은 "건강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플로깅 행사를 회원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임상병리사회는 이번 남한산성 걷기대회에 이어 오는 9월 6일(토), 제2회 건강걷기대회 '서대문안산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상호 교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야외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3회 심장초음파 Hands-on 실무교육 수료식 실시

4월 12일(토) 안산대학교 자유관에서 경기도임상병리사회가 후원하는 제3회 심장초음파 hands-on 실무교육 수료식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3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1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경기도회원이 다수인 가운데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취업일자리 교육 지원을 위해 타 지역 회원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열어 8명을 선정했고 교육생 전원이 수료증을 받았다. 최우수 수료생에는 이소연, 우수 수료생에는 박지원 회원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안산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강윤정 학과장은 그동안 졸업생들의 수석 합격 및 취업률 등을 대학본부 측에 강력히 소명 후 예산지원을 요청해 생리기능검사 기자재(심장초음파, 뇌파, 실습용 마네킹 등) 다수를 최근 새로 도입했다. 이에 이번 심장초음파 교육을 함에 있어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심장초음파검사의 뛰어난 검사 술기를 견비하고 업무영역을 확고히 굳히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강사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시작된 '심장초음파 hands-on 실무교육'은 어느 새 3년차를 맞이했다. 교육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교육차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유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사태로 인해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의를 갖고 교육에 지원해 심장초음파 전문가로 새로이 발돋움 할 회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았다. 특히 작년 2차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 중 다수가 심장초음파업무로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교육의 진가를 보였다.

앞으로 경기도회는 심장초음파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수료 공신력 확보를 위해 모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가 3월 29일(토) 오후 2시부터 부산국제 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D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임상미생물학의 실제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최초로 서울 이외의 지역인 부산에서 진행됐다.

Section I: 현장 중심의 임상미생물학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김근주 교수가 'Fundamentals of the Gram Stain'을 주제로 미생물 염색법의 기초와 임상적 적용을 짚었으며, 삼성서울병원 황유연 학회장은 '호흡기 배양의 실제'를 통해 실무적인 검사 프로세스와 최근 트렌드를 공유했다. 본 세션은 동의대학교 강해숙 교수와 동아대학교 신성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Section II: 감염병 관리와 진단의 진화

두 번째 세션은 최근 이슈가 되는 감염병 진단의 진보에 집중됐다. 비오메리코리아 최인혁 박사는 'C. difficile 감염: 검사에서 감염관리까지 - VIDAS CDAB/GDH의 역할'을 소개하며 자동화 검사 플랫폼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인제대학교 김시현 교수는 '감염질환의 분자적 진단'을 통해 최신 분자진단기법의 임상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부산백병원 김광범 교수는 '다제내성균의 신규 항생제 보고'를 주제로 치료제 개발의 동향을 발표하며 학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 세션의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성희경 교수와 고신대학교 정택현 교수가 맡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끝났다.



황유연 학회장은 "최근 감염병 대응과 분자진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임상미생물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식과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하는 학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



2025년 품질관리전문임상병리사 교육생 모집 안내

- 1) 접수일자 : 2025년 5월 1일 ~ 6월 16일, 수련비용 : 40만원
- 2) 접수방법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청)
- 3) 입금방법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청)
- 4) 지원자격 :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중앙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시험응시 당해 연도 1월 1일까지의 임상 근무경력이 만 8년 이상인 회원으로 제한하며 반드시 해당 검사학회 주관의 전문임상병리사 관련 수련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5) 강의일정 : 2025년 6월 29일 ~ 8월 10일(7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6) 강의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25-10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하 대강당
- 7) 강의목록 : 전체 20과목

01. 품질관리 개요	11. 6시그마 정도관리
02. 검사실 재무관리(물품 및 재고관리)	12. 자동분석기 역사
03. 검사실 지표관리	13. 검사실 인적자원 관리
04. 검사실 설계 및 Setting	14. 임상검사정보체계(HIS, LIS, IF)
05. 검사실 사용 물관리(정수기)	15. 장비 도입 시 선택과 평가
06. 검사실 운영관리(인증기준)	16. 검사실 검량보전(Calibration)
07. 검사실 수가	17. 검사실 안전관리, 위험관리
08. 검사실 의사소통	18. QA 및 학습조직
09. 환자의사소통(CS)	19. 채혈 교육 및 실습
10. 관리자 리더십	20. POCT

(담당 간사 : 송성수 H.P : 010-3769-8628)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2025년 제12회 3개국 조인트 미팅 개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학회장 소전기)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위원장 신민식)가 3월 7일(금)부터 3월 9일(일) 이대서울병원 컨벤션홀에서 제12회 한국, 일본, 대만 조인트 미팅을 개최했다. 중앙회 이광우 협회장과 소전기 학회장, 신민식 위원장이 참석했고 각국 대표(한국 박노원, 대만 Yi-Ju Lee, 일본 Hitoshi Abe)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번 조인트 미팅에는 일본과 대만에서 참가한 40여 명 포함 총 100명이 넘는 각국의 세포전문임상병리사가 참석해 총 22개의 구연발표가 이뤄졌다. 이번 구연발표는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뉘져 한국(김상일), 일본(Nobuaki Kato), 대만(Shu Hui Lin)이 세션별로 좌장을 맡았고 각국의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양성 시스템 부분, 부인과 세포학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폐경이후의 여성에 대한 진단 부분, 비부인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피암에 대한 소개, 세포와 접촉된 분자 진단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3개국 조인트 미팅은 2009년 일본과 대만의 세포전문임상병리사들이 실력 향상과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한 모임으로 결성했고 2012년 하화정 당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장이 일본세포검사기사회장으로부터 발표자로 초대를 받아 2013년 대만 화롄에서 개최된 제5회 조인트 미팅에 참석했다. 이후 개최를 제안 받아 제6회 조인트 미팅을 개최했고 한국 세포전문임상병리사의 국제화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포전문가로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경험, 운영시스템 등 사례 보고 및 구연발표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3개국 조인트 미팅의 다음 개최국은 일본이다. 2026년 예정된 IFBLS 총회로 인해 다음 조인트 미팅은 2027년 개최될 예정이다.

소식지 HEPa 2호 발간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가 2025년 상반기 조직세포검사학회 관련 소식이 담긴 HEPa 2호를 발간했다.

기사 내용으로는 5월 24일(토)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되는 2025년 춘계학술대회 안내와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및 국립암센터 NGS 인터뷰 기사가 포함됐고 교육 후기 관련 기사로는 2024년 춘계학술대회 후기, 2025년 현미경 심화교육 후기가 실렸다. 이밖에도 'Spatial Transcriptomics' 관련 칼럼, 3개 전문임상병리사(조직, 세포, 육안) 소식, 세포 ASCPi 도전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포르말린 입·출고 프로그램 개발 사용 후기, 중앙회 정책 관련 기사,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등재 논문 등 다양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또한, 회원들이 소식지 HEPa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초성퀴즈'란도 추가했다. 소식지를 읽고 응모한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HEPa 2호는 조직세포검사학회(https://ksh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EPa 2호는 조직세포검사학회(https://ksh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EPa 총 편집자인 소전기 학회장은 앞으로도 HEPa를 통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알릴 예정이며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



임상병리사의 연구 무대, KJCLS - 논문을 투고하세요!

존경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 여러분, 임상병리사는 정밀 검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진단과 검사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KJCLS)는 협회 유일한 공식 학술지로, 임상병리사의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한국연구재단 KCI(Korea Citation Index) 등재 학술지입니다. KJCLS는 임상검사과학 발전을 위한 학문적 교류의 장으로, 회원 여러분의 활발한 연구와 논문 투고가 그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임상병리사의 연구, KJCLS에서 빛나다

임상병리학 연구는 실무와 연결될 때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회원 여러분의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KJCLS에 투고하면, 학문적 성과가 널리 공유되고 실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논문 한 편이 임상병리학의 발전을 앞당기고, 더 많은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지금 KJCLS에 논문을 투고하여 연구의 가치를 더욱 빛내시기 바랍니다.

논문작성법 지원 사업 안내

논문 투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문작성법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록 작성, 참고문헌 정리, 표·그림 구성 등 논문 작성 과정에서 1:1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 윤리 및 논문 투고 시스템 활용 안내도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메일(office@kjcls.org)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투고

홈페이지 방문하기

<https://www.kjcls.org/main>



대한임상검사과학회 KJCLS의 발간 역사(1967~)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0000 0004 6406 3334 (2021년 등록)

발행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Review Articles

Desmosomes: Structure, Pathologies, and Signaling Dynamics
(부착반: 구조, 관련 질병 및 신호역학)
Jiyun HONG, Ki-Jong RHEE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1-15

Role of CYP2D6 Gene Variants and Family History in Personalized Antidepressant Treatments for Depression (우울증에 대한 맞춤형 항우울제 치료에서 CYP2D6 유전자 변이 및 가족력의 역할)
Minji KO, Yumin KIM, Hanbyeol CHOI, Ho-Keun CHOI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16-26

Original Articles

Comparison of Motor Nerve Conduction Findings in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 and Charcot-Marie-Tooth Disease Type 1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과 샤르코-마리-투스병 1형의 운동신경전도 소견 비교)
Dae Jin KIM, Jae Kyung KIM, Keun-Yeong JEONG, Ji-Hyuk KANG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27-36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in Medical Technicians: Insights from the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의료기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도 및 소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례)
Eun-Taek HONG, Yo-Han SEO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37-47

Role of Voice Signal Analysis in Screening for Cognitive Impairment: A Study o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음성 신호 분석을 통한 인지 장애 선별: 지역 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Sangdo LEE, Young Chul YOUN, Gihyun YUN, Hunboc LEE, SangYun KIM, In Jeong KIM, Ho Tae JEONG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48-55

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y as an Acceptable Criterion For Reagent Lot-to-lot Comparability Test in Nuclear Medicine (핵의학검체검사에서의 시약 로트 간 동등성검사 시 측정불확도를 적용한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Jun Mo PARK, Jin Tae KIM, Jun Young PARK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56-65

Association between TG Genetic Polymorphisms and Thyroid Diseases (TG 유전자 다형성과 갑상선 질환과의 상관성 연구)
Gaeun KIM, Eun-Jung KIM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66-75

Case Study on the Remodeling of Laboratory Medicine according to International Instructions: Focus on the Case of S Hospital (국제 지침에 따른 진단검사의학과 리모델링 사례 연구: S 병원 중심으로)
Taewon JUNG, Jiyun LEE, Juyang PARK, Chulwoo PARK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76-87

Study of Tacrolimus Calibrator and Reagent Matrix Effect (타크로리무스 캘리브레이터와 시약의 기질효과에 관한 연구)
Haeyong JUNG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88-93

Technical Notes

Carotid Duplex Ultrasonography: Clinical Applications and Cases (경동맥이중초음파검사: 임상 적용 및 사례)
Minho HAN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94-106

General Overview of Epilepsy Surgery (뇌전증 수술의 전반적 개요)
Soon-Chul HYUN, Ji-Hoon JANG, Somin LEE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107-119

Errors and Accurate Correction Methods in Ophthalmic Visual Field Tests (안과 시야검사의 오류와 정확한 교정의 방법)
Sung-Hyun KIM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1): 120-129

보고싶은 논문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5월 23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 제507호 당첨자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김성현 교수 인터뷰

김윤경 회원 / 전화번호 : 32131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임상병리사가 지식도 중요하나,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므로 임상병리사로서 내가 가진 전문분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당시는 수액 맞고, 약 처방 정도의 활동이었기에 봉사활동을 가면 '임상병리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채혈, 간이검사 등 우리의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선, 후배님들께서 길을 닦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의 분야가 더 넓게 여러 방면에 도움이 되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소식

국립암센터 박병민 회원 주도 연구 논문, 미국미생물학회 학술지 게재



박병민 회원(국립암센터 진단검사의학과)이 교신저자 및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Accuracy of real-time PCR assays for human papillomavirus using urine sampl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가 3월 31일(월),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IF 6.1, 미국미생물학회 ASM 발행)에 온라인 선공개 형식으로 게재됐다.

해당 논문은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 검출을 위한 소변 기반 실시간 PCR(real-time PCR) 검사의 정확성을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연구로 박병민 회원은 "특히 여성 대상 자가검진 및 비침습 진단 도입 가능성 측면에서 임상적 가치가 높으며, 임상병리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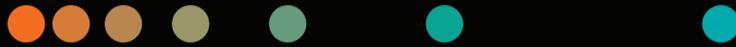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와 인스타그램 팔로잉 부탁드립니다.

Atellica® CI Analyzer

Integrated Chemistry and Immunoassay Analyzer

siemens-healthineers.com/atellica-ci-analyzer



QR700002239

Small Size. Big Impact.

임상화학 · 면역 검사 통합 솔루션

Atellica® CI Analyzer 장비는 임상화학 · 면역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시스템 기능 및 특징점

- 독립적 운용 형태 임상화학 · 면역 검사 동시 수행 – 검체 로딩 위치 동일
- 검체 저장 공간 최대 120검체 (60 input / 60 output)
- 시간당 검사 처리
 - 생화학 : 1000 tests/hr (일반화학 600, 전해질 400)
 - 면역 : 120 tests/hr
- 시약 장착
 - 생화학 : 총 70개 포지션 (Single & Dual reagent kit)
 - 면역 : 총 40개 포지션 (주시약 20 / 보조시약 20)
- 응급 검체 처리 검체 로딩 후 1분내 검사 시작
- Atellica® Solution과 동일 시약 플랫폼 백업 기능 효과 및 시약 관리 편리성

새로운 소프트웨어 형태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유저 인터페이스

- 앱 형태로 검사실별 특화된 메뉴 구성
- 샘플 관리 추적성 강화
- 환자, 칼리브레이션, QC 결과 통합 관리



4월



PRESS

세이프타임즈 2025.04.01.[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회 '산불 피해자' 성금 모금

세이프타임즈 2025.04.07.[세이프타임즈]

경북임상병리사 영덕 산불피해복구 자원봉사 '구슬땀'

Dailymedi 2025.04.08.[데일리메디]

"의사만 있으면 되나, 모든 의료인 적정인력 필요"

세이프타임즈 2025.04.08.[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회 "의료개혁위해 법률 개정 필요"

의계신문
 MEDWORLD 2025.04.09.[의계신문]

"올바른 의료개혁 위해 의료기사 정의 재정립 필요"

의학신문 2025.04.09.[의학신문]

"올바른 의료개혁, 의료기사 정의 재정립부터"

후생신문 2025.04.09.[후생신문]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올바른 의료개혁 위해 의료기사 정의 재정립해야"

매경헬스 2025.04.10.[매경헬스]

임상병리사협회 전북도회, 마라톤서 의료봉사 전개

후생신문 2025.04.10.[후생신문]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전북 임상병리사회, 의료봉사로 도민의 마음을 열었다

의학신문 2025.04.11.[의학신문]

전북임상병리사회, '군산새마라톤대회'서 의료봉사 시행

의학신문 2025.04.12.[의학신문]

경북임상병리사회, 산불 피해복구 자원봉사 실시

매경헬스 2025.04.29.[매경헬스]

대한임상병리사協,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1760만원 기탁

의학신문 2025.04.29.[의학신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약 1800만 원 전달

세이프타임즈 2025.04.29.[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협회, 경남·경북·울산 '산불피해' 성금

세이프타임즈 2025.04.30.[세이프타임즈]

"완화된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무면허 의료 부추겨"

매경헬스 2025.04.30.[매경헬스]

검진기관 임상병리사 배치 기준 개선 논의

의학신문 2025.04.30.[의학신문]

"일반검진기관, 임상병리사 고용 예외조항 폐지해야"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추가 해주세요!



경남도회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부산사회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인천사회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광주시회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울산사회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경기도회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강원도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충남도회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전북도회

전북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경북도회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서울사회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대구사회

대구시
임상병리사회



광주시회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광주시회



경기도회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경기도회



강원도회

강원도회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충북도회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충북도회